

마인츠중앙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ir heißen alle herzlich willkommen und segnen im Namen des Herren.

1. 오늘은 성탄예배로 드립니다. 광고 후 주일학교 성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2. 청년부 성탄 음악회 녹화본이 공유되었습니다.
3. 예결산 모임 2022년 1월 9일, 예결산 제작회 1월 16일, 예결산 공동의회 1월 23일
4. 마인츠중앙교회는 토마스교회가 따르고 있는 방역지침(2G)에 따라 현장 예배 참석자는 명단을 작성하시고 모든 예배에 미접종자 참석은 불가합니다.
5. 12월 31일(금) 송년예배는 주일예배와 같이 본당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립니다.
6. 2022년 교회 표어는 '힘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주제성구: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9)

섬김이		예배 위원			교회 후원 선교지
담임목사	시무장로	날 짜	기 도	안내	
한성호	소병찬	12.26	이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키르키스탄(다니엘 P)</li> <li>• 코소보(S00)</li> <li>• 독일 쾰른(N00)</li> <li>• 케냐(L00)</li> <li>• 베트남(L00)</li> <li>• 타지키스탄(L00)</li> <li>• 마다가스카르(B00)</li> </ul>
교육전도사	이정수	01.02	소병찬		
장재성	이태성	01.09	이혜영		
		01.16	박윤순		

베드로전서 4:8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1. Petrus 4:8 Vor allen Dingen habt untereinander beharrliche Liebe; denn »Liebe deckt der Sünden Menge zu«

2021년 표어 여호와를

기뻐하라

Freue dich über den HERRN, und er wird dir geben,  
was du dir von Herzen wünschst (Psalm 37:4)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4)

AD 1986

마인츠 중앙교회

원로목사 박의석

담임목사 한성호

목양실 . 06131 380 9981

제36권 52호 2021년 12월 26일

※ 표는 일어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 주일예배 1부 12:00 / 2부 15:00

인도자 : 한성호 목사

찬 양 (2부)	Lobpreis		찬양부
※ 묵 도	Eingangsgebet		다함께
※ 찬 송	Lobpreis	108 장	다함께
※ 신앙 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함께
성시 교독	Wechsellesung	119 문	인도자
대표 기도	Gebet		이정수 장로
봉 헌	Kollekte	자원찬양	박영두 집사
성경 봉독	Schriftlesung	마태복음 2:1-12	인도자
찬 양	Lobpreis	성탄 찬양	성가대
말씀 선포	Predigt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한성호 목사
광 고	Abkündigungen		인도자
성 탄 축 하 행사			주일학교
※ 찬 양	Schlusslied	마라나타	다함께
※ 축복 기도	Segen		한성호 목사

▲ 수요기도회 수요일 20:00

본당 예배

한성호 목사

예배 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2:00	본당	주일학교예배	영유아/유치	주일 12:00	별관
	주일 2부예배	주일 15:00	본당	청소년부예배	유년 / 초등	주일 12:00	별관
	수요일예배	수요일 20:00	본당	청년부예배		주일 12:00	별관
						금요일 20:00	본당

# 2022년 구역 편성표

은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총성
다빛트랜츱/ 유샘	남윤범/ 김유진	신진욱/ 인혜진	유정훈/ 서문희	이승기/ 안미영	이재현/ 현은진	한은석/ 김정현	홍근희/ 박도실
이해리 M. Klein	남은순	이용희/ 제이선	김진숙	최연원/ 민춘강	김군희	이창영/ 배미옥	오명자
이민지 D. Schmidt	이정수/ 박윤순	이수혜	이혜영/ Müringer	최광삼	이태성/ 정향림	양명숙	김문영
윤나라 R. Dreuw	김영균/ 신시라	이혜설	모정석/ 민혜란	정복순/ Kohnhorst	이근석/ 신오경	김계성/ 류현	소병찬/ 홍승연
이미자	이민성/ 박경애	배형만/ 박정애	장혜정/ 한제원	양선영/ 리선근	문준영/ 허혜림	기현서/ 우승혜	정숙영
이유미	이승현/ 이승빈	장은준/ 김미라	박영두/ 김예랑	고광진/ 엄선형	엄명용/ 김윤정	김재형/ 허원	장바우/ 안성희
김주영	조위성/ 이호현	박상기/ 김나리	백윤기/ 엄미연	윤석민/ 황부원	김호영/ 한상순	김태용/ 구은경	김민성
이미진	강대희		고윤진/ 오진주	송동현/ 조아름	이윤지	강구일	이영욱/ 양유미
이미라				이유정			한은희
13	14	12	15	16	14	14	13

## :: 보이지 않는 사랑, 보이는 사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랑을  
싫어하십니다. - 토마스 왓슨

Indeed faith deals with invisibles, but  
God hates that love which is invisible.  
- Thomas Watson

사도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을 통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을 그만두고 몸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서 두 개가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도 없다면 나의 하나를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뿐이 그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 기 도 제 목

- ❖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임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 ❖ 성탄의 날 밝게 비추신 그 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내 가족, 우리 교회를 비추게 하옵소서.
  - ❖ 사랑과 성실함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의 길을 밝히시고 성령충만, 말씀충만하게 하옵소서.
  - ❖ 주일학교와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 ❖ 코로나로 인하여 삶과 예배가 위협을 받는 때에도 소망이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 ❖ 나승필, 박다니엘, 백경진, 서원민, 이만민, 이재은, 이정호선교사님의 삶과 가정을 지키시고 사역가운데 선한 열매를 주옵소서.
-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초대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마인츠중앙교회는  
주님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기쁨을 나누는 신앙공동체,  
가족공동체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힘쓰는  
예배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더불어 행복한, 이곳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승하는 신앙공동체입니다.
-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력 있는 예배공동체입니다.
- 주님의 보혈로 맺어진 행복한 가족공동체입니다.
- 건강한 교회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공동체입니다.
-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 우리, 교회의  
Vision 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예수공동체가 됩시다.

Die Mainz Chung-Ang Gemeinde, als Leib Christi, ist erfüllt von der Gnade des Herrn und eine Glaubensgemeinde, die Freude teilt. Sie ist eine Gemeinschaft aus Menschen, die den Wunsch haben, Gott allein zu verherrlichen. Wir laden Euch ein, Euch an diesem gesegneten Ort an der Gnade des Herrn zu erfreuen und einen wahrhaftigen Gottesdienst zu feiern.